

원 · 달러 환율 하락세에 희비 교차

기러기 아빠, 송금 부담 줄어 '웃고' vs 수출기업 '울상'

원 · 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으로 거액의 목돈을 부쳐야 하는 기러기 아빠들은 송금 부담이 줄면서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데다 해외여행이 잦아지거나 해외직구(직접구매)를 즐기는 고객들은 비용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며 환박웃음을 짓고 있다.

반면 외국회사에서 달러로 월급을 받는 일부 봉급생활자들과 원화 강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수출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울상이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은 가파른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 1월 2일 1210.0원으로 시작한 환율은 2월 28일 1130.0원으로 떨어졌고, 이달 들어서도 꾸준히 하락하며

27일에는 1112.8원까지 추락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0일(1108.4원) 이후 169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3개월여 만에 100원 가까이 급락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원화 강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전문가는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나오는 4월 중순까지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보호무역주의 이슈가 부각했고 원화 약세를 막아줄 만한 재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 · 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해외에 가족을 보낸 기러기 아빠들은 송금 부담을 한층 덜고 있다.

기러기 아빠가 5000달러를 해외로 보내려면 올해 초만 해도 605만원 정도가 들었지만 요즘은 555만원이면 가능하다. 약 50만원 가량을 절감하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외환담당자는 "환율 하락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기러기 아빠"라며 "미국 대학의 1인당 평균 유학 비용이 연평균 6만달러로 가정하면 올해 초보다 100원이 떨어진 환율이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6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직구족과 해외 여행객들도 환율 하락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

해외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면 환율 하락만큼 할인혜택을 얻게 되고, 해외여행 경비가 줄어 해외여행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

반면 환율이 떨어지면 주름살이 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달러로 월급을 받는 해외 근로자 가족들은 환율 하락으로 실질소득이 크

게 줄어들 수 있고, 외국인 여행객을 상대하는 국내 호텔과 백화점 등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외화예금 가입자들도 걱정이 앞서긴 마찬가지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달러화 외화예금의 경우 금리가 연 1~2% 수준인 상황에서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과 세금 등을 때면 실질적인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

환율 하락은 국내 기업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져온다.

달러화 채무가 많은 기업들은 떨어진 환율만큼 부담이 줄게 되지만, 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선 원화 강세가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한다.

원 ·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져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게 되면 최근의 수출 회복세가 꺾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로컬푸드 실무책임자 전략회의 개최

전북농협은 30일 3층 회의실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6개소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점장 등 실무책임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실무책임자들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출하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고,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수거해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해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북농협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의 업무협약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잔류농약

사 시료수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결과 부적격 농산물은 즉각 출하정지를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출하농업인에 대한 재교육 등을 강화해 소비자가 항상 안심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직매장을 운영하겠다고 결의했다.

강태호 본부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고품질의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출하농산물 안전관리 및 매장관리를 대폭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경진원, 공공구매 지원단 · 소규모 상담회

전북도와 전북경제진흥원은 30일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 2017년도 제1차 공공구매 지원단 및 소규모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공구매 지원단 활동에서는 도교육청 및 전주교육지원청 구매, 계약 담당자가 참여해 지역제품 우선구매 동참을 통한 지역제품 판로 확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기업에로혜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의견수렴 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이후 진행된 소규모 상담회에서는 도내 성능인증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9업체가 참여해 도교육청, 전주교육지원청 구매, 계약 담당자와 자사 제품 소개, 발주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했다.

/인재용 기자

보리 · 밀 담금먹이, 닭 · 돼지 사료비 절감 효과

농진청서 기술개발... 곡물자급도 높이는데 기여할 듯

농진청형성은 보리 · 밀 성숙기에 식물체 전체를 분쇄한 담금먹이(사일리지)의 배합사료를 닭과 돼지에 먹여 사료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동안은 성숙기의 보리 · 밀 전체 담금먹이를 소의 풀사료로 이용할 경우, 배합사료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겨울에 재배한 보리 · 밀로 만든 담금먹이를 돼지와 닭이 먹는 배합사료의 일부를 대체한 것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맥류 활용도를 높여 곡물자급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합사료와 혼합하기에 적합한 보리 수확적기는 이삭 팎 후 35일경, 밀은 40일경이 건물수량과 사료치가 가장 좋았다.

새로 개발한 담금먹이를 돼지사료의 3%~5%, 닭사료의 5%~10%를 대체했을 때, 양질의 섬유소 공급과 함께 사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담금먹이 대체 비율은 기존의 배합 사료와 함께 먹었을 때, 가족의 증체량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적정 비율로 설정했다.

보리 수확성은 1ha당 생초 39톤,

건물 12톤, 밀은 생초 36톤, 건물 16톤 정도이고, 가소화양분총량(TDN)은 보리, 밀 각각 66.6%, 67.6%, 조단백질 함량은 각각 7.5%, 7.0%로 기존과 유사하나, 담금먹이 품질은 낫싹함량이 각각 7.49%, 5.16%로 기존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의 경우, 담금먹이를 먹으면 변비 예방 및 장내 환경 개선 효과로 분만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축산농가에서도 담금먹이를 사료에 섞어 먹이는 농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인재용 기자

이 기술은 겨울동안 이모작으로 맥류를 재배해 수확시기를 10일 이상 앞당기면서 식물체 전체를 가족의 배합사료로 활용하므로 비와 함께 이어짓기에 좋다.

수입곡물의 5%~10%만 대체해도 4,000억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의 5%~10%를 대체할 경우, 전년도 평균 사료가격 기준으로 돼지는 1,748억원, 닭은 2,528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기술은 닭, 돼지의 육질개선 부가가치 효과까지 밝혀 농가현장에서 시범적용 단계를 거쳐 실용화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금감원, 익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초청 금융교육 행사

전북은행과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은 지난 29일 익산지역 외국인 대학생 40명을 초청해 금융교육 및 금융거래를 체험하는 '외국인 유학생 초청 금융교육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 또는 제도적인 차이로 인해 금융거래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금융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행 영업부 창구에서 계좌개설, 모바일뱅킹 등 실제 금융거래를 체험하고, 금융감독원 강사로부터 꼭 알아야 할 은행, 증권, 보험의 기본개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전북은행 김병용 부행장은 "금융감독원 전주지원과 함께 금융과 관련된 유의한 행사를 실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 및 다문화가족에 대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조달청은 30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기업 성장과 품질 우선 조달행정을 위한 2017년도 조달업체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우수조달업체를 비롯한 도내 주요 조달업체 및 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2017년 조달정책 운영방향 설명과 제도안내를 통한 조달정책을 공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임중식 청장은 "업체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중기청, 기술혁신대전 내달 28일까지 참가자 모집

전북조달청, 조달업체 초청 간담회 개최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